

예술가와 친구들

승례문에 비밀창고 뒀던 소년 이견용, 고3 때 국전 입선

황인
미술평론가



이견용의 부친 이봉구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마친 교회 목사였다. 서울 출신의 모친은 세브란스병원 수간호사를 지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녀의 부친이 동경의 간호대학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에게 종각 목사를 소개하며 결혼할 것을 원했다. 그 종각 목사가 이견용의 부친 이봉구다.

부계-모계 모두 일찍 개화한 집안이었다. 이견용의 할아버지는 양의사였다. 해방 전에 강원도에 열병이 돌았는데, 치료하러 갔다가 자신도 열병에 걸려 사망했다. 이봉구 가족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이봉구는 임신한 부인을 혼자자 된 시어머니가 있는 황해도 사리원으로 보내었다. 1942년 이견용은 사리원에서 태어났다. 1945년 가을, 사리원의 이견용 일가는 서울로 남하했다. 이봉구 목사는 동대문구 제기동에 세워진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성교회를 개척했다. 이봉구의 가족 또한 제기동에서 살았다.

이견용은 중앙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곧 6·25 전쟁이 났다. 부친을 따라 부산·진해·소록도·제주도를 전전했다. 제주도에서는 진흙으로 균함과 비행기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 동네 아저씨들이 와서는 “우리도 균함과 비행기가 있었으면 전쟁에서 쉽게 이겼을 텐데”라고 말하자 소년은 “제가 얹! 하고 기합을 넣으면 이 비행기가 날아갑니다!”라고 응수했다. 피란 생활 동안 너무나 많은 학교를 전전하는 바람에 일 년을 꿰었다. 환도하여 중앙초등학교 5학년으로 복학하여 졸업했다.

이견용은 서소문에 있는 배재중등학교를 다녔다. 당시 미술반 학생들의 야외 사생은 주로 경복궁 등 고궁에서 했다. 이견용은 고궁에 가는 대신 야외 이젤을 길바닥에 세워 놓고 서울 시내의 실감나는 모습을 한두 시간 그리다가 등교하였다. 제기동에서부터 무거운 화구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아예 학교에서 가까운 승례문이다 비밀창고를 마련하여 이젤·화판·물감 등 화구를 숨겼다. 그 누구도 어린 학생이 국보 1호 승례문이다 비밀창고를 만들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림을 그리다가 출근 시간이 가까워져 인도에 사람이 북적이면 이젤을 거두어 다시 승례문 비밀창고에 잘 숨겨 놓았다. 2008년 승례문이 불탈 때, 이견용은 소리쳤다. “아, 나의 옛 창고가 불타다니.”

파리비엔날레 참가 계기 한묵과 인연

이견용은 제기동에서 입업시험장이 있는 흥릉숲을 지나 경희대까지 자주 걸었다. 부친의 오버코트, 구두와 모자를 쓰고 어린 흥대를 내며 이 코스를 왕복했다.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다. 현상학 등 철학을 독학하던 조숙한 소년이었다.

1960년 부친 이봉구가 광성고교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서강대 근처 대흥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다섯 대나 되었다. 작은 트럭 한 대에만 세간살이가 실렸고 나머지 큰 트럭 네 대 모두 책이 실렸다. 당시 어마어마한 가격이었던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 한 질도 실려 있었다.

책이 너무 많아 책꽂이에 다 들어가지도 않았다. 서가를 다니려면 책을 쌓아 올린 책기둥 사이를 통과해야 했다. 모친은 그 책들이 싫었다. 남편이 책사는 데에 돈을 쓰느라 부인은 보석·반지·옷 등을 살 수가 없었다. 화가 나면 가장 비싸게 보이는 책부터 2층 서재에서 마당으로 내다 던졌다. 책이 너무 두꺼워 서너 권 던지면 지졌다. 사태가 수습되어 조용해지면 부친은 나직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견용아, 책 주워 올려라.”



자신의 '바디스케이프' 연작 중 한 작품 앞에서 있는 이견용 작가.

이견용이 고교 2학년 때 부친은 하와이에 갈 일이 있었다. 이견용은 부친에게 자신의 그림들을 가져가서 하와이에서 평가를 받고 팔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부친은 의심이 들었으나 들고갈 수밖에 없었다. 과연 그림이 팔렸다. 그것도 하와이의 미대 교수에게. 돌아오는 길에 도쿄에 들러 이들의 그림 값으로 차(茶)를 사서 들고 왔다. 고교 3학년생으로 국전에 출품하여 입선했다.

전쟁으로 초등학교도 1년 쉬었는데 몸이 아파 중학교도 1년 휴학했다. 흥익대 서양화과에 들어갔을 때는 동기들보다 두 살이 더 많았다. 동기생으로는 김복영·성능경·이반·박길용 등의 화우들이 있었다.

흥대를 졸업한 이견용은 화가 이종무가 운영하는 이화여대 입구의 동양미술학원에서 강사를 했다. 나중에는 그 화실을 인수받았다. 이때 아동화를 가르치던 승연례를 만났다. 서라벌예대를 졸업한 재원이었다.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빌미를 만들었

황해도 사리원 출신 미술가

서울 서소문 배재중등학교 다녀 화구는 승례문에 숨겨놓고 등하고

고2 때 하와이 교수에 그림 팔기도 1973년 파리비엔날레 한국대표로

이, 퍼포먼스 등 실험미술로 일관 캔버스 작업으로는 '바디스케이프'

다.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고 하루 20분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초상화를 그리는다는 명분으로 얼굴의 여기저기를 관찰했다. 눈·코·입·귀. 보면 볼수록 다 예뻐다. 데이트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집은 신촌이었다. 이견용은 집으로 돌아갈 때 대흥동으로 골장 가지 않고 신촌 로터리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거슬러 서강대 쪽을 향했다. 신촌 로터리의 비전티움 다방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1971년 두 사람은 결혼했다.

1973년 9월, 제8회 파리비엔날레에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 겨우 파리 오흐리 공방에 도착했다. 무작정 한국대사관을 찾아가니 마침 일요일이라 문이 닫혀 있었다. 생면부지의 한묵(1914~2016)을 무작정 찾아갔다. 한묵이 1961년까지 흥대 교수로 지냈다는 인연에 기밀 요량이었다. 계단을 오르며 ‘무슈 한’을 외쳤다. 4층쯤 올라갔을까. 문이 삐걱 열리더니 한국말로 “누구요?”라고 했다. 초면이지만 자초지종을 얘기하



1973년 6월 명동화랑에서 열린 제2회 S.T 회원전. 왼쪽부터 박원준·황현욱·남상명·이견용. (사진 갤러리현대)

니 집안으로 들어오라 했다. 한묵은 훗날 이화여대 미술사 교수가 된 정병관을 불렀다. 세 사람은 중국 식당을 찾아갔다. 정병관을 보내고서 한묵과 이견용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한묵은 그해 서울의 공간사랑에서 열린 ‘한묵 체불 판화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묵이 판화작업에 열중하는 동안 줄음이 몰려온 이견용은 아전집대에 몸을 눕혔다. 깨어나 보니 좁은 아전집대의 뜰새로 한묵이 누워서 자고 있었다. 한묵은 이견용이 자신의 좁은 아파트에 놀아붙을까 걱정했는데 잠깐의 동침으로 이견용을 매정하게 내보낼 수가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두 사람이 함께 시장을 보러 가는 것을 신호로 한 달간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동남아 등에 교회 50개 설립 약속

파리비엔날레에서 이견용에게 배당한 공간은 50평. 여기에 현장작업으로 ‘신체화’를 설치해야 했다. 뿌리가 있는 거대한 나무 동치를 지중의 단면과 함께 보여주는 작업이었다. 작품 스케치를 그리고 요구사항을 써서 흥대 교수인 미술평론가 이일의 번역으로 비엔날레의 예술감독에게 미리 편지를 보냈다. 나무는 주최 측이 구해다 주었지만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유학생 청년작가 세 사람이 도와주었다. 피가로신문의 자매지 잡지에 파리비엔날레에 관한 프랑스 평론가 장 자크 레베카의 글이 실렸다. 세 묶음으로 나뉜 글이었는데 한 묶음이 운전하게 이견용에 관한 것이었다. 전시는 대성공이었다.

이견용은 퍼포먼스 등 실험미술로 일관했다. 캔버스 작업으로는 ‘바디스케이프’ 연작을 해왔다. 캔버스를 등 뒤에 놓고 팔을 뻗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을 밟길해나가는 작업이 바디스케이프다. 신체는 은유적으로 캔버스에 개입시키는 한국 작가는 많지만 신체의 유한한 조건을 직접 캔버스에 드러내는 작가는 거의 없다. 동양에서 신체는 신(身)과 체(體)로 분리된다. 밟기를 할수록 등 뒤에 놓인 캔버스에 체(體·physical body)의 흔적이 쌓여간다. 그때마다 화면의 가운데에 이견용의 몸을 담은 텅빈 공간이 점점 부풀어오른다. 텅 비어있는 그 형상이 작가의 신(身·metaphysical body)이다. 무수한 붓질이 수신(修身)으로 완성된다.

수신의 이견용은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이견용은 동남아 등 여러 국가에 교회 50개를 짓겠다는 약속을 했다. 실험적인 그의 작품이 전혀 팔리지 않을 때였다. 거짓말처럼 몇 년 전부터 그의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다. 벌써 교회 수십 개를 지어 불헌했다. 그림도 값도 비우고 비운다. 그게 이견용의 인생이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황인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시기획과 공학과 미술을 융합하는 학제 간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현대화랑에서 일하면서 지금은 거의 작고한 대표적 화가들을 많이 만났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